너무 쉬운 공감을 의심한다

권김현영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타인의 죽음이 내 삶에 들어올 때
타인의 고통에 내가 더 상처받을 때
타인의 고통을 듣는 자가 가져야할 태도
너무 쉬운 공감을 의심한다
몰랐을 리 없다
피해라는 날개와 발톱
“내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양진호의 폭행 피해자는 알고 있었다
안희정과 재판부가 유죄다
성인지감수성과 두 개의 점
그녀는 당신의 남편에게 반하지 않았다
양현석과 YG 패밀리의 유산
장자연 사건 이후 잃어버린 10년

고통은 의미가 없고

피해는 끝나지 않은 세계에서

무기력과 분노 사이에서

피로감만 켜켜하게 쌓여갈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든 일에 힘껏 화를 내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봤자 대부분 소용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 거리를 둔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때 다시 할 수 있는 걸 한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일에는 이런 생존 전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최소한의 사회정의' 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은 폭주 모드가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 거리를 두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
그럴 때는 그냥 쏟아져오는 감정을 맞이한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파도 속에 들어가면 파도를 느끼지 못하듯, 이 역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어떤 인과관계도 없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머리 속으로 직접 '들어오고'
실제로 비슷한 고통을 그대로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다.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긴다.
대리 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이라 하기도 하는데,
주로 트라우마 생존자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

권김현영,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19, 휴머니스트

부서진 마음은 사금파리처럼 부서져 폭발하고
그 파편이 나와 적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부서진 마음이 우리 자신과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더 커다란 능력으로 "깨져 열릴" 수 있다.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62쪽

그러나 “낯선 자들과 함께 하는 삶”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삶이라면
여성은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차별-혐오-폭력의 연쇄가
여성을 향해 쏟아지는 현재,
'안전'이 밀레니얼 시대 가장 중요한
페미니즘 운동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안전은 타락한 목표다”

현재 여성의 안전이란 남성에게 내려지는 엄한 징역형을 의미한다.
형벌은 갱생보다는 보복을 우선시한다.
여성의 안전은 무례한 발언에 사려깊고 정중한 발언으로 대신하는 대신
특정 말들을 혐오발언으로 규정하고 탄원과 시위로 입다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통제와 관련이 있다.
폭력을 일으키며 쓰레기 같은 말이나 내뱉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지를 논의하는 대화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도시 밖으로 노숙자들을 내쫓고 빈곤을 무찔렀다고 말하길 원하는가?

여성의 안전이 선전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 제사 크리스핀

“생존”에의 위협에 대해
“안전”에의 요구로 전환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권이 상상되는 방식의 한계 때문

“이게 나라냐”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질문이
“여성과 아이를 위해 안전한 나라”라는 답으로 바뀌면서

생존에 대한 질문이
안전에 대한 요구로

몫을 나누는 자가 누구인가
목숨을 셈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포함되고 배제되는가

에서

몫을 요구하고
목숨을 셈할 권리를 요구하고
배제할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쉬운 표적을 찾아 분노를 폭발시키기

페미니즘은 그 이상이다.

포스트-트루쓰 시대,

계몽의 실패 위에 쌓아올려진 지적 실패는 대중정치의 동학을 어디로 이끄는가?

신자유주의 시대는 “타자의 존재에 대한 실존적 공포”를 야기했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느끼는 강간-공포는

어떤 방식으로 정치화되는가?

희생양 찾기 게임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연대는 어떻게 망가져가는가?

누구나 피해자일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

발화자에 집중하는 주목경쟁이 피해를 전시하는 고통경쟁이 되지 않으려면
피해 자체를 운명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사회’가 만들어지는 곳은 ‘청자의 공동체’

피해/가해가 구성되는 조건을 질문하고
가해-동일시와 피해-동일시의 이분법의 거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위해

누군가를 ~~대신해~~

말한다는 것

“나의 입은 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불행을 말하는 입이 될 것이다”

– 에메 세제르

누군가를 “위해” 말한다는 것은

“아주 빈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경청되지 못했던 인간의 무력감”

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지들이 위안부야 아주”

– 김학순

침묵은 말이 되었지만 말은 의미가 되었을까

증언은 그 자체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아니라

청자와의 관계에서 변화하고

이후의 삶 속에서 재구성된다.

생존자의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삶을 듣는다는 것이다.

“평생 잊혀진 적이 없는 기억”

일을 저지른 사람은 발을 뻗고 자고
당한 사람은 잊지 못한다

정봉주 사건 때 한 변호사가 쓴 말
“7년 전 일을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천재”

#나는천재다 #내가증거다

피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가해자가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책임을 부인하면
피해자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계속 문제를 제기할까, 잊어버릴까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존재가 절멸되었다고 간주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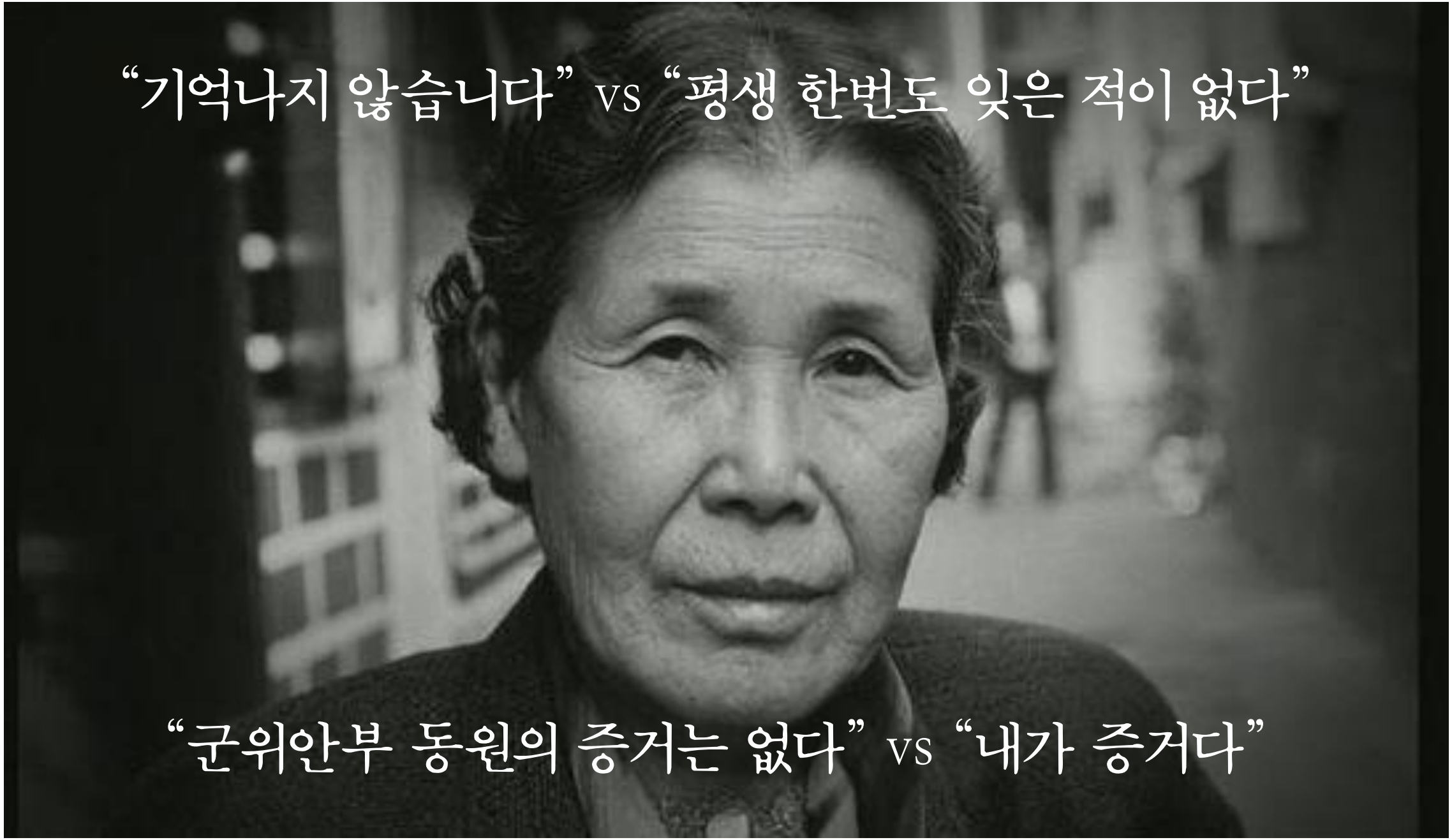
그래서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된다

영혼의 살인
씻을 수 없는 상처

잊혀지지 않는다

내 기억이 증거다

내가 여기 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vs “평생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
“군위안부 동원의 증거는 없다” vs “내가 증거다”

생존자가 말하기를 통해 커밍아웃(coming-out)을 했다면,
청자들은 그 증언을 통해 앎을 획득해나가는 비커밍아웃
(becoming-out)해야, 청자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 도미야마 이치로, 2019년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일본군 위안부 국제포럼 라운드 테이블 중

공감-동일시는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착취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

대리 외상에 빠져 무기력해지거나

대변하려고 하는 순간 당사자의 목소리가 등장할 수 없어

“너는 나다” “나는 너다”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었다”여야하는 이유

POSTMEMORY

포스트메모리란 2세대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신적 충격을 주어
마치 그들 자신의 기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 (feat. Marian Hirsch)

"포스트메모리 세대"는 (나치가 집착했던) 사진이라는 시각매체를 통해
트라우마를 (가족 앨범 안에서) 세대를 건너 전달받는다.

한국 사회에서 트라우마가 "시각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던 순간은…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가 된 포스트메모리

여자라 살해당했다

시각 이미지의 공포

트라우마적 기억(traumatic memory)은

경험이 사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재경험되는 것

(feat, 프로이트)

트라우마에 의해 규정되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억이 효과적으로 트라우마와 화해하는 것은 어려워지며,
어떤 경우에는 애도가 좌절되거나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부인되기도 한다.
실패한 애도는 (…) 멜랑콜리의 대상이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히틀러 집권기의 영광인지조차도 분명치 않게 되는
모호한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기억의 일시적 망각 속에서 부인되고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변형되거나 위장된 모습으로 되돌아옴을 상기시킨다.

(feat, 도미니크 라카프라)

무차별적 동일시는 자아와 타자의 혼동을 몰고온다.

자아와 타자 구분이 되지 않고,

시간의 경계가 파괴되는 반사적 행동화(acting out)가 일어나는 트라우마를

성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working through)

무차별적인 동일시가 아니라 분절(articulation)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것 역시 문제인데,

예컨대 결혼, 성매매, 리얼돌, 포르노, 이성애 등

이 모든 것을 "강간"이라고 부르는 식의 문제 (feat. Mackinnon)

공감적 동요(empathic unsettlement)가 일어날 때,

변화를 위한 다른 기억/다른 시간이 열려

기억하는 방식에는 행동화(acting-out)과 성찰(working-through)가 있는데,
이 중 행동화는 '과거'에 머물러 동일화를 통한 감정이입을 특징으로 하고,
성찰은 '현재'에 머물러 '비평적 거리두기'(critical distance)를 하는 것.
이 두 과정이 상호모순이 아니라 병존가능한 과정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비결정성과 비활성의 단계를 수용하는 '중간 목소리(middle voice)'가 필요.

(feat, 도미니크 라카프라)

트라우마는 기본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이 현상에 맞서는 방법이

정서적 공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공감은 동일시가 아니라 차이에 기반해야만

"깨져 열릴 수" 있다.

여기서의 공감은 차이를 제거하지도,

동질화하지도 않으며,

또 타인을 개조하지도 않으면서 관계를 맺는 것.

공감은 사회정치적 행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과 **다시** 연결되는 정서적이고 윤리적인 반응.

“피해자가 등장한 이후 우리는 얼마나 청자의 공동체를 만들어 오는데 성공했을까. 그 공동체는 피해를 당한 그 복잡한 맥락과 권력의 동학을 모두 이야기해도 되는 방식으로 성장해온 걸까”

– 김은실, 2019년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일본군 위안부 국제포럼 라운드 테이블 중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여성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여성이 인간이 아닌 사물로 취급받았다는 것은

여성이 사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여성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누가 인간인가?

듣지 못하는 자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말하고 듣고 연결되기를 원하는 자

내가 나로 사는 한 결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선 내가 아닌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독립적으로 살 수 싶지만 혼자는 싫고,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나를 살게 하기도 하며,

자유는 언제나 위험을 담고 있다.

정답은 없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언제나 모순과 역설 속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냈다.

권김현영,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12쪽

그 이상의 페미니즘, 진화하는 페미니즘과 함께.